

# SKT 이 끌고 KT 네이버 카카오 밀어주는 시스피커 시장... 세계 5위 '코앞'

**SKT '누구' 조명 결합한 '누구캔들'**  
**KT '기가지니' TV와 홈서비스 연계**  
**네이버 '프렌즈' 홈IoT 기능 접목**  
**카카오 '카카오i' 가전·자동차 공략**

SK텔레콤에서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조명등이 결합된 제품인 '누구캔들'을 내놓으면서 국내 AI스피커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 시장은 3%의 점유율(약 300만대)로 캐나다를 제치고 5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까지 국내업체가 선보인 제품은 ▲SKT 누구 ▲KT 기가지니 ▲네이버 프렌즈 ▲카카오 미니 등이다. 이동통신사 가운데 LGU+는 네이버와 협력해 클로버를 기반으로 한 U+ 우리집AI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업체 상황에 따라 각자 독특한 개성을 불어넣고 있으며 먼저 고객의 마음에 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은 통신사인 SK텔레콤 누구와 KT 기가지니가 주도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추격하는 구도라



왼쪽부터 SKT '누구캔들', KT '기가지니', 카카오의 '카카오미니'.



/SK텔레콤·뉴스시스·카카오 홈페이지

고 본다. 최근 국내 업체들이 스마트홈 외에 호텔과 편의점 등으로 AI 스피커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제품들이 더욱 각 분야에 맞게 개성적으로 발전할 여지도 있다.

우선 SKT가 선보인 누구는 원통형 전용기에 대화하듯 말을 걸면 의미를 이해해 답해준다. 텀러벨이나 크리스탈, 아리아 같은 몇 가지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해 부르면 이용할 수 있다. SKT는 이후로 누구 미니, T맵X누구, 준X누구, BtvX누

구까지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내놓았다. 주 용도로 멜론과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재생하고, 조명이나 제습기 같은 가전 기기를 제어하는 데 쓰인다.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휴대폰 찾기를 하거나 알람과 일정관리 등의 비서 역할도 수행한다.

누구와 누구 미니 등을 합친 누적판매량은 50만대 수준이며 새로 출시한 누구캔들은 올 연말까지 20만대 판매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누구 캔들은 물론

기능을 더욱 향상한 제품을 연달 출시할 예정이다.

KT 기가지니는 IPTV와 인공지능을 결합시킨 형태로 TV와 연계한 홈비서 기능을 제공한다. 고품질 오디오 하만카돈 스피커를 채택했고 카메라가 탑재되어 풀 HD급 영상통화와 홈캠을 지원한다. 이후 기가지니2, 기가지니LTE 등의 파생제품을 내놓았다. 기가지니의 누적 판매량은 80만대 수준이며 올해말까지 15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용 서

스, 호텔용 서비스를 따로 만드는 등 기기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 하드웨어인 '프렌즈'뿐 아니라 클로바 AI 형태로 서비스를 타회사에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네이버와 손잡고 네이버 AI 스피커 '프렌즈'에 LG유플러스의 홈IoT 기능을 접목한 U+우리집AI(프렌즈플러스)를 출시했다. 4월에는 후속 시리즈 프렌즈플러스 미니언즈를 선보였다. 또한 네이버는 샤오미와 업무협약을 맺고 샤오미의 스마트홈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AI 플랫폼인 '카카오i'를 핵심으로 집안과 자동차 환경을 공략하는 전략을 택했다. 하반기 출시될 카카오희용은 아파트, 가전과 기타 가전기기·설비 등을 손쉽게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용 가능하다. AI스피커인 카카오미니를 활용해 음성으로 기기조작을 명령할 수 있고, 카카오희용 앱으로 빠르고 편리한 연동기기 통합제어를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정식 출시한 카카오미니는 준비된 물량 20만대가 소진되며 판매를 마쳤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 삼성, QLED TV '번인현상 없음' 공인

**비디오-테스트랩 협업해 테스트 실시**  
**국제 측정 표준에 근거해 고강도 진행**

삼성전자의 2018년형 QLED TV 전 모델이 독일 유력 평가기관에서 번인·잔상 프리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독일 최고 권위의 AV 전문 평가지 비디오(Video)가 유력 평가기관인 케네트 테스트 랩과 협업해 삼성 QLED TV에 대한 번인과 잔상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2018년형 QLED TV 전 모델이 번인·잔상 프리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테스트는 디스플레이 화질 측정 국제 표준인 정보디스플레이 측정표준(IDMS)에 근거해 고강도로 진행됐다. HDR 영상은 높은 밝기는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HDR과 게임 등 화질 평가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항목도 평가해 신뢰성을 높였다.

비디오지는 이번 테스트와 관련해 수천 유로나 하는 돈을 들여 고급 TV를 구매했는데 번인 현상이 나타난다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테스트 결과 QLED TV에서는 번인이나 잔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독일 최고 권위의 AV 전문 평가지 비디오(Video)가 유력 평가기관인 케네트 테스트 랩과 협업해 삼성 QLED TV에 대한 번인과 잔상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2018년형 QLED TV 전 모델이 번인·잔상 프리 인증을 획득했다.

번인(Burn-in)이란 같은 화면을 장시간 켜 두거나 방송사 로고와 같은 동일한 이미지가 한 위치에서 오랫동안 반복 노출됐을 시 화면에 잔상이 남는 현상이다. 화질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프리미엄 TV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꼽힌다.

게다가 번인과 잔상 등 다양한 화질 이슈는 높은 명암비와 밝기를 가진 HDR 콘텐츠나 이러한 화면들이 빠르게 전환되는 게임 콘텐츠에서 특히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평가 결과로 삼성 QLED TV가 모든 화질 평가 기준에 있어 우수함을 입증했다.

/안병도 기자

## 아이가 그린 동화가 TV로... '아이들나라 2.0'

**LG유플러스**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  
**IPTV 유아서비스 플랫폼 선보**

LG유플러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1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IPTV 유아서비스 플랫폼 '아이들나라 2.0'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페어를 방문한 고객은 행사장에 마련된 체험부스에서 U+tv 아이들나라 2.0에 새롭게 추가되는 유아 전용 콘텐츠를 출시 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 우리집IoT 및 U+우리집AI 서비스도 체험 가능하다.

다음달 출시 예정인 U+tv 아이들나라 2.0은 기존 아이들나라에 유아 전용 콘텐츠인 ▲웅진북클럽TV ▲생생체험학습 ▲AI전화놀이와 예비·초보 부모를 위한 ▲부모교실이 추가된 서비스다.

웅진북클럽TV는 누리과정 영역별 도서 및 예비초등 필독서를 포함한 웅진북클럽 주요 전집 콘텐츠를 TV로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생동감 있는 영상과 음성을 지원해 책에 관심 없는 아이도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도와준다.



LG유플러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1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IPTV 유아서비스 플랫폼 '아이들나라 2.0'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AR를 활용한 체험학습 서비스인 생생 체험학습에는 미술과 음악, 신체 놀이 등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성을 키워주는 콘텐츠가 탑재됐다. 내가 만든 그림책 서비스는 자녀가 직접 그린 동화 캐릭터가 TV 동화책 속 주인공이 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줘 호기심을 자극한다.

IPTV 리모콘에 말하면 영어·중국어·일본어로 번역해주는 AI전화놀이는 외국어 말하기 교육에 유용하다. 부모교실

은 예비 부모와 초보 부모를 위한 서비스로 임신·출산·육아·교육 분야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우리집IoT 및 U+우리집AI 서비스 체험존에서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환기시점을 알려주는 IoT공기질알리미, 아이의 착석 자세를 확인하고 자세 교정을 돕는 링스마트 IoT 의자 등 육아에 도움이 되는 IoT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안병도 기자

## 정유업계, 국제 유가상승에 2Q 실적 기대

**전년비 영업익 큰 폭 상승 예상**

국내 정유기업들이 유가 상승 압박을 받고 올 2분기 어떤 실적을 내놓을 지 눈길을 끈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 압박에 정유업계는 이번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상승한 영업이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의 3, 4, 5월 유가는 각각 배럴당 62.74달러, 68.27달러, 74.1달러로 매달 상승세를 지속해왔다. 브렌트유(66.72달러→71.76달러→77.01달러)와 WTI(62.77달러→66.33달러→69.98달러)도 같은 기간 상승했다.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증권

사들은 국내 정유업계의 2분기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정유업계 1위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2조9000억원, 영업이익 9300억원을 각각 달성할 것으로 관측됐다.

에쓰오일도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6조1500억원, 영업이익 5000억원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현대오일뱅크는 매출 4조9500억원, 영업이익은 43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반기 전망은 밝은 편이다. 무엇보다 국제유가 간 가격 격차가 좁아지는 동시에 여름철 차량 이용이 늘어나는 등 석유제품 시장이 성수기에 돌입하는 것도 한 몫 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SKT-현대차, 에너지 효율 관리 '맞손'

**열병합발전 시스템·FEMS 솔루션**  
**울산공장에 에너지 관리 체계 구축**

SK텔레콤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열병합발전 시스템과 FEMS 솔루션 구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FEMS는 ICT를 이용해 공장 내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하루 평균 6000여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내며 공장

부지만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이번에 구축한 발전 시스템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연간 1100만kWh로 예상된다.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20억원이다.

양사가 구축한 발전 시스템은 열병합발전 방식이다. LNG를 연소하는 가스터빈을 이용해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스팀을 공급한다. 특히 FEMS 솔루션을 적용해 발전의 모든 공정을 자동화했기에 무인 운전도 가능하다.

이번에 구축한 열병합발전 시스템은 그간 울산공장이 운영해온 디젤 비상 발전

기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발전기 관리 효율성 향상과 정전 발생 시 대응시간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약 50억원의 노후 발전기 투자 대체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양사는 발전 시스템 및 FEMS 도입이 온실가스 감축이 배출권 구매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존 발전기의 경우 사용량 감소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과 외부 전력 구입 감소로 하절기·동절기 피크기간 국가 전체 전력 수급 조절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 김성환 스마트시티유닛장은 "선도적인 IoT 기술을 통해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함께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병도 기자